

허대만 예비후보, 구룡포 수협방문 간담회

허대만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선거구)는 3일 구룡포 수협을 방문해 영세어민을 위해 유류지원과 특례 보증부 금융지원을 이번 추경에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구룡포 수협 김재환 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어가 급락으로 영세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 보증부 금융지원'과 '유류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과 여당 정책위, 농림수산부 등에 추경변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허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의 고통은 관심을 크게 받고 있지만 영세어민



허대만 예비후보와 구룡포 수협방문 간담회 모습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들의 어려움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추경에서 영세어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현지 어민 및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횡집, 상점 등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을 호소했다. 또한,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를 비롯한 대부분의 생산물이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영세어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식 기자 sl05031@naver.com

서재현 예비후보

“재난상황 정치적 이용, 김승동 후보 자중해야”

서재현 대구 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동구갑 선거구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쟁이 아닌 정책경쟁의 선거운동을 펼치자고 요구했다.

서재현 후보 측은 출퇴근시간 코로나19로 인해 희망을 잃어 가고 있는 동구갑 주민들에게 대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각오로 '코로나19 극복 정책'이 아닌 '정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통해 비대면 선거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어 지난달 20일 코로나19를 '문재인 폐렴'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시 28일 '중국 대통령 문재인은 하야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조차 의심받았던 김승동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를 직접 겨냥해 유권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정쟁에만 몰두한 20대 국회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 동구갑 주민들의 민심을 들었는지 묻고 싶으며, 또 국가적 재난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김승동 후보의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후보는 김후보에게 동구갑 지역 주민을 대변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 및 이행에 대해 고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제시를 할 의지 및 능력이 없다면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방 수칙알림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클린룸을 활용한 격리센터 제안, 전통시장 방역문제제기, 연락두절 신천지 교인 정보공개요구, 그리고 우체국 마스크 판매방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박형룡 예비후보, “병상 제공 광주 온정 깊이 감사”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예비후보(사진)가 “병상 제공을 결정한 광주의 온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광주시청, 시 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공동체 특별 담화문'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대구 경증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격리치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당비 1,000만원을 지원금으로 보내왔다고 한다.

박 예비후보는 “대구의 중증환자들은 시간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영호남의 벽을 넘어 광주가 보내 온 온정은 병상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는 대구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며 “광주의 힘들과 어려운 통 큰 결단으로 대구의



중증환자 치료에 물꼬가 터지는 듯하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의 결정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80년 5월 광주항쟁은 광주의 일만이 아니었다. 대구에서도 많은 민주화 운동인사들이 구속됐고 고문 받았다.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형제 도시이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에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대구 2·28정신과 광주5·18정신이 맞닿아 지금의 달빛동맹으로 이어져 있다는 담화문의 내용이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강대식 예비후보, “2·28 정신으로 코로나19 승리를”

대구 동구를 예비후보인 강대식 전 동구청장(사진)이 대구 2·28 민주운동 60주년인 지난달 28일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제언했다.

강대식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60년 전 대한민국 민주화의 첫 불씨를 당겼던 대구는 오늘 성대한 기념식 대신 코로나19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린 대구시민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힘내라 대구”를 외치며 보내주고 있는 격려의 메시지와 성금·성품 기부 릴레이는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감동의 백선이 돼 시



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대구가 코로나19 전투의 최전선임 잊지 말고 병상과 의료진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대식 예비후보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초석을 놓은 대구의 아들로서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대구시민들의 능력을 믿고 있다”며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헌신과 희생 정신을 이어 받아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김상훈 의원, 예비비 3조 즉각 투입·병상 3천개 마련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3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구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상훈 의원은 2월 중순경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코로나 종식'을 제창하면서, 지역감염의 대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종식이 아니라 '증식'을 대비해도 부족한 시점에 오히려 방역고삐를 해제하면서 '오만의 후폭풍'을 불러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절반, 곧 87개국으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대상이 돼 가히 '국제적 격리' 상황에 빠진 것

과 관련, 이는 문대통령의 '고백'과 같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적기대응에 실패한 결과임을 지적했다.

또한 김상훈 의원은 대구지역 내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3천개 병상 확보, 3조 예비비 즉각 투입을 주문했다. 현재 대구시는 연수원 등을 활용해 병상을 확보 중이나 턱없이 부족, 집에서 대기 중인 지역 격리자가 1천 6백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병상 부족분 3천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연수시설의 총동원 및 민간기업 협조 강구, 전국 지자체 병상 활용 등에 정부가 적극



김상훈 의원

정'에서 탈피할 것 또한 강조했다. 아울러 기 마련된 예비비 3.4조원을 즉시 대구지역 의료기관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예비비를,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고작 1천여억원만 쓴 것을 비판하고, 짧지 않은 시간과 심사가 필요

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 내려온 이유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면피행

정'에서 탈피할 것 또한 강조했다. 아울러 기 마련된 예비비 3.4조원을 즉시 대구지역 의료기관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예비비를,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고작 1천여억원만 쓴 것을 비판하고, 짧지 않은 시간과 심사가 필요

한 추경에만 기대는 이유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급이라도 국무회의 소집해 예비비 3.4조 전액을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훈 의원은, 최소한 마스크 수급만이라도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국민 불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지적하며, 정부가 이런 기초적인 민생 행정조차 감당하지 못해 국민의 피해가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문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정부가 감염병의 '슈퍼전파자'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선거연수원, ‘제13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4월 24일까지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사회지도자양성과정인 '제13기 민주시민정치아카

데미' 수강생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내달 24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 운영은 오는 5월 27일~10월 14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10시까지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선거·정치에 관한 전문 과정과 외교·국방(통일)·경제·사회·역사·인문 등의 교양 과정으로 편성돼 있으며, 교수진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승천 예비후보

사회적 거리 두기 2주간 ‘잠시 멈춤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대구동구(을) 이승천 예비후보(사진)는 코로나19 지역내 확진자 (3월 2일 오전 0시, 현재 3,081명) 다수발생을 계기로 모든 시민접촉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 후 현시점에서 지역내 확산추세를 멈추기 위해선 감염 예방수칙 지키기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란 외출 자제하기, 모임 및 집회 참석하지 않기, 직장인 회식 자제 및 재택근무 유도, 불가피하게 타인 접촉 시 최소 이격 거리 두기 등이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시민 모두가 감염 예방 수칙은 아주 훌륭히 준수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



이승천 예비후보

기 운동만 제대로 자리 잡으면 코로나19 종식은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것이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코로나19 방지 캠페인으로 버스로드 캠페인, 시민참여 응원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버스로드 캠페인과 연계한 ‘클린로드 캠페인’에 직접 참여 하겠다. 버스정류장내 시설물 소독 및 주

또한 민주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 3월 처음 개설해 지난 해 1271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총 415명의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수료생으로 배출했다.

선거연수원은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변 쓰레기 줍기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는 확산방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집 밖으로 나오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조성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감염 예방 수칙 생활화, 사회적 거리 두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뤄지면 코로나19는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배영식 예비후보

‘한국인 배척 87개국, 강경화 장관 경질하라’

미래통합당 배영식(경제·예산전문가) 대구중·남구 예비후보(사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입국제한 국가가 87개에 달하고 '코리아 포비아'(한국인 공포증)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주무부처 강경화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해외주재 대사관의 관련공무원

은 격리시설 등에 상주시켜 교민지원 강화에 나서줄 것을 3일 촉구했다.

배영식 예비후보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나 14일간 격리조치 등 '코리아 포비아' 현상은 외교부의 소극적 또는 노력부재로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며 주무부처 장 장관은 책임지고



배영식 예비후보

제적 손실을 감안해 입국 금지조치를 유보했는데도 오히려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해 14개 성·시에서 '호텔 격리' 혹은 '자가 격리'를 하는가 하면 대구

모 투자를 해준 베트남까지 가세해 우리국민을 공포의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외교부채에서 촉발됐다”고 말했다.

배 예비후보는 “한국의 '코로나19' 실태를 해외주재 대사관직원이 해당 국가 주무부처를 방문, 정확한 사실내용을 설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포비아'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전상헌 예비후보

정책브리핑 ‘궁금해 하니생각3’ 발표

전상헌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가 정책브리핑·궁금해 하니생각3'을 발표했다.

정책선거 실천방안으로 발표하고 있는 정책브리핑·'궁금해 하니생각3'의 주제는 공공의료강화 방안으로써 '지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이다.

그는 “경산의 '코로나19' 확산은 매우

빨랐다. 하지만 경산의 의료인프라와 의료인력은 절망적인 수준이다. 3월 2일 기준으로 단 열흘 만에 경산의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었지만, 경산의 응급 병상 수는 고작 37개뿐이어서 감전, 안동, 포항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확진자 격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지역 응급의료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전상헌 예비후보

강조했다. 또 “경산은 이미 고통화에 진입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르신 주차의제도와 더불어 '지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에 따르면, “대도시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응급의료센터 접근성은 매우 떨어진다. 특히 골든타임을 요하는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경우 응급의료센터까지 신속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현재 대구미래대 부지 일부에 경북권역재활병원이 건립 중인데 인접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조지연 예비후보

문 대통령에 ‘코로나바이러스 특단 대책’ 요구

경산 조지연 국회의원 예비후보(현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사진)가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편지를 통해 문 대통령께 마스크 공급과 병상 및 의료진 긴급 지원을 요청하며, 제차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강

는 확진자들이 집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그 기다리던 환자 중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예비후보는 편지를 통해 문 대통령께 마스크 공급과 병상 및 의료진 긴급 지원을 요청하며, 제차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강



조지연 예비후보

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더불어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경산은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로 확진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마스크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 예비후보는 끝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며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한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이상길 예비후보

‘코로나 의병’ 혼선 없이 제대로 맞이해야

이상길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사진)는 전국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의료인력과 물자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으로 변

어지면서 이미 대구만의 힘으로는 관리가 힘든 상황이 됐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진, 마스크 등 전국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유입흐름과 확진자를 비롯한 응급환자들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유희흐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통합컨트



이상길 예비후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지자체간 병원시설 공동 이용관련 협의조정가능 문제, 외부지원 의료진의

숙식문제, 방호복부족, 마스크공급혼선 등의 문제들도 통합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며 조속한 통합시스템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외부지원 의료진을 위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무료개방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발적 캠페인을 펼치는 대구시민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